



인간이 만들어 온 바다 위의 길

-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읽고 -

황 성 원*

인간이 길을 만든다. 산에는 나무와 풀을 헤치고 바위를 치워 황토 빛 깔의 흙길을, 논과 들에는 바둑판 모양의 네모진 길을, 도시에는 딱딱하지만 계획적인 차도와 인도(人道)를 만든다. 우리들은 맹수들을 제압하고 대자연에 적응하며 나뭇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인간들의 사회에는 법(法)과 규율(規律)이라는 이름의 길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도덕적이며 이성적인 그 길을 우리는 '질서'라 부른다. 뿐만아니라 인간들은 서로의 마음 안에도 길을 내려한다. 뜻대로 그 길을 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들은 상충하고 대립하며 괴로워한다. 짝사랑의 예를 보아도 그렇다.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를 뜻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기에 아쉬움과 허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변화와 정복, 편익 추구에의 의지는 '길'이라는 다의어를 통해 잘 나타난다.

드넓고 거친 두려움과 경이의 대상이자 대자연의 모태적(母胎的)미지의 이름인 '바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간들은 그 푸른大海의 장엄함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관조적(觀照的)이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바다 위에도 길을 내려고 했다.

현대에 이르러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해운분야에 있어서 항해술과 조선술 또한 놀랍도록 발전하였다. 활동유체(活動流體)와 내,외연기관 등으로 구성된 엔진은 더이상 돛과 노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동력(動力)을 주었고, 냉동 기술의 발달과 자체 발전 및 청수(淸水)시스템으로 수상(水上)에서의 오랜 활동을 보장받는 한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인공위성 항법), ARPA(Automatic Radar Plotting Aids -자동 레이다 플로팅 장치) 등의 치밀한 통신, 항해 체계의 도입으로 바다 위에서 보다 안전한 항해, 보다 정확한 항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기술의 발전과 과학적 도구들로도 아직 수상에서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바다는 바람과 파도만으로도 인간들의 지식과 노력의 결정체들을 순식간에 날려 버릴 수 있으며, 지나치게 사회적인 인간의 나약함을 비웃듯이 고향에 대한 향수와 육지의 내음을 강요하여 인간들을 곧 혼란에 빠지게 할수도 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의 바다 위에서는 어느 누군가가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그 푸르고 거대한 대자연을 감당하고 길을 내기에 아직 바다는 아직 바다는 거대하다.

그런 거대한 바다에 맞서 바람과 별만을 의지하며 바다에 뛰어난 기원전(紀元前) 인간의 시도는 어떤 의미인가? 지금처럼 비교적 정확한 항해술과 어느 정도의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름의 지혜와 빈약한 힘만을 가지고 망망대해로 서슴없이 나아간 그들의 정신은 어떤 것이었던 말인가? 대자연의 힘만큼 인간의 길 만들기 노력 또한 방대했다는 것일까?

이런 큰 줄기의 의문들로 서양문학 사상 가장 오래된 고전이자 위대한 서사시로서 이타카섬의 왕 오디세우스의 바다위의 용맹담을 담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펼쳐 들었다.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와 함께 전세계에 완전하게 전해진 문학작품으로 그 규모의 웅대함이나 서술의 교묘함, 구상의 다양함으로 문학적으로 크게 인정되고 있는 작품으로 특히 인생을 관조하는 깊이가 뛰어나 서양문학의 뿌리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한 개인의 창작이 아닌 수백년간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온 이른바 구송시(口誦詩)를 호메로스라는 뛰어난 음유시인에 의해 집대성되고 완성된 것이다. 그 주제(主題)는 고대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이며 트로이 전쟁(기원전 1200)을 주시점으로 한다. 오디세이아의 설립연대는 대개 약 기원전 800년경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현존한 형태로 고정된 것은 보다 뒤인 6세기경으로 보인다고 한다. 오디세이아는 1만 2천 1백

10행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장편시로 그리스 원정군이 트로이를 공격한 뒤 지혜로 이름 높은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의 귀국담을 노래한 것이다. 이 오디세이아는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10년에 걸친 표류와 표박(漂泊)생활을 겨우 41일의 이야기로 끝맺고 있으며 24편 하나 하나의 이야기들을 작가는 교묘히 한데 엮어 붙여 혼연일체가 된 장편이 탄생하게 되었다.

10년이나 지속되었던 길고 지루한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 원정군은 고국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트로이가 멸망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지혜롭고 어진 이타카의 군주(君主) 오디세우스는 귀국길에서 재난을 당한 후 오기기에 섬에서 님프 칼립소라는 여신에게 억류당한다. 이를 가엾게 여기는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와 그의 아버지인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은 회의를 열어 그의 귀향을 돕기로 한다. 그리하여 여신 아테네는 이타카 섬으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찾아가한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오디세우스가 귀향하지 않아 시름에 잠겨 있었고,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와의 재혼을 요한다는 빌미로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여러 포악한 구혼자들 틈에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에게 오디세우스의 자취를 따라 출항할 것을 권고하고 구혼자들을 물리칠 계책을 설명 해준다. 이것이 신의 도움임을 느끼고 크게 용기를 얻은 텔레마코스는 이타카섬 안의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어 자신의 여행에 동참할 인재를 불러 모으고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한편 집안의 구혼자들에게 물러갈 것을 요구한다.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를 찾아 본토로 떠날 것을 선언하자 구혼자들은 이를 방해하려 들지만 텔레마코스는 여신의 도움을 받아 밤중에 몰래 배를 준비해 떠난다.

텔레마코스는 트로이 원정에서 돌아온 노장(老將) 네스토르에게 오디세우스의 행적과 자취를 묻기 위해 필로스에 당도한다. 네스토르는 아들과 함께 텔레마코스를 환영하고 정중히 대접하지만 오디세우스의 소식은 알지 못하기에 그를 최근에 귀국한 스타르타왕 메넬라오스에게 보내기로 하고 아들을 안내역으로 동행시킨다.

이들이 스파르타에 이르러 국왕 메넬라오스의 거성(居城)을 방문하자 메넬라오스는 그들을 환대하고 회포를 푼다. 메넬라오스는 자기가 표류하

던 동안 아이깁도스에서 바다 귀신 프로테우스한테서 들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텔레마코스는 왕으로부터 오디세우스가 대양의 한 북편에 있는 한 섬에서 님프 칼립소의 포로가 되어 날마다 눈물로 지낸다는 소식과 함께 많은 선물을 받아 가지고 귀로(歸路)에 오른다. 이런 텔레마코스에게 대한 여신의 조치는 구혼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후에 나타나게 된다.

아테네 여신의 권고로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다시금 오디세우스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의 아들 헤르메스를 사절로 님프 칼립소에게 보내어 오디세우스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분부를 전달한다. 님프는 불만스러우면서도 하는 수 없이 따르고, 오디세우스에게 떠날 준비를 해주는 한편 뗏목과 식량, 술 등을 실어서 그를 떠나 보낸다. 오디세우스는 얼마동안 순풍을 타고 나아갔으나 이윽고 그를 미워하는 해신 포세이돈에게 들켜, 삼시간에 폭풍의 엄습을 받아 뗏목이 부서지고 만다. 그는 해엄으로 간신히 스케리에 섬에 표착하게 되고 나무 숲속의 낙엽더미에 파묻혀 잠이 들어 버린다.

스케리에 섬의 왕인 알키노스의 딸 나우시카는 강기슭에서 공던지기를 하던 중 숲속에서 오디세우스를 발견한다. 오디세우스는 나우시카를 붙잡고 입을 것 먹을 것을 청하는데 그녀는 부왕의 궁전으로 그를 오라한다.

오디세우스는 아테네 여신의 도움으로 스케리에 궁전에서 왕과 왕비에게 무리없이 모습을 드러내고 융숭한 대접과 송환(送還)을 약속 받는다. 이곳에서 바야흐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낙성(落城)뒤의 표류담을 이야기하게 된다.

12척의 요선(僚船)을 이끌고 트로이 해안을 출범한 다음 그들은 키코네스족의 서해안에 상륙, 그 근방을 약탈한다. 그 후 아흐레 아홉 밤을 폭풍에 휘말린 끝에 그들이 닿은 곳은 연밥을 먹는 족속의 나라였다. 연밥이란 아편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먹은 사람은 환각 상태에 빠지며, 친구도 조국도 잃어버리고 멍청하게 나날을 보내게 된다. 오디세우스는 이에 기겁을 하고 연밥에 중독된 자들을 억지로 끌고와 결박하여 다시금 출항을 하게 된다. 그 후 그들은 해신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 키클로페스의 나라에 닿게 된다. 그들이 없는 틈에 동굴로 잠입한 그들은 키클로페스인 폴리페모스에게 붙잡혀 두사람씩 그의 먹이가 되었다.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는 거인을 포도주로 만취시켜 잠 들게 한 다음 그의 눈을 불로 지지고 거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양의 배를 붙잡고 가까스로 동굴을 빠져 나온다. 그러나 거인은 아버지인 해신 포세이돈에게 그의 복수를 해줄 것을 기원하고 이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노여움과 미움을 받아 오랜 고난을 격기에 이른다. 외눈박이 거인 키클로페스의 손에서 탈출한 그들은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의 섬으로 간다. 이 곳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출범하여 아이올로스가 보내준 순풍대로 열흘간 항해하여 드디어 고국에 닿는 듯 했으나 바람의 신이 보내준 가족부대를 절대로 열지 말라는 당부를 지키지 못한, 그들은 몹쓸 질풍에 휩쓸려 바람의 신이 사는 곳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레동안 항해하여 닿은 곳이 라이스트리고네스라는 거인들의 성지였는데 이들은 다짜고짜 오디세우스 일행에게 달려들어 작살로 찌어 대고 바위를 던져 배를 부수려 했다.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중 일부만이 살아남아 마녀가 살고 있는 키로케 섬에 닿게 된다. 탐색을 나선 한 무리가 키르케의 마법에 걸려 돼지로 변하게 되고, 이들을 찾으러 간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의 가르침으로 마술을 피해 키르케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벌주고 후에 영접을 받아 동료들과 그곳에서 지내게 된다. 귀국길에 오르려 하지만 키르케가 명부(冥府)에 가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의 유혼(幽魂)에게 앞날을 물어볼 것을 권해 오디세우스는 대양의 흐름을 타고 다시 북쪽으로 항해한다. 저승에 당도하여 구덩이를 파고 술을 붓고 제물을 바쳐, 사자(死者)의 유혼을 불러낸 오디세우스는 그의 앞날에 관하여 예언을 듣고 어머니를 비롯한 망자들과 만나게 된다. 키르케로부터 여러 가지 식량과 선물을 비롯하여 험난한 곳과 대비책을 전해들은 오디세우스와 일행은 노래하는 여괴 세이레네스, 해협을 지배하는 깊은 소용돌이 카리브디스와 개처럼 목을 길게 늘어 뜨리고 수부를 잡아가는 스킬레 등의 위험 천만한 사지에서 벗어나 얼마 후 태양신이 소를 치는 트리나키 섬에 당도한다. 그러나 식량 부족으로 허기져 있던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이 태양신의 소를 잡아먹었으며, 그뒤로 서슴없이 소를 죽여 신의 노여움을 산 그들은 출범하자마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오디세우스만이 목숨을 건져 칼립소의 섬에 표착한다.

이 길고도 험난했던 오디세우스의 표류담을 다 들은 스케리의 국왕은

오디세우스를 위해 그가 잃은 것보다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그를 배에 태워 이타카로 돌려보낸다.

아테네 여신의 도움으로 돼지치기 오두막에서 잠복을 하며 아들과 상봉하여 구혼자들을 염탐하던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지혜와 용기로 구혼자들을 굴복시키고 아내 페넬로페와 아버지 라에르테스와의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된다.

전체 24권 중 1~4, 5~12, 13~24의 3부로 나눌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험난하고 거칠었던 해상에서의 파란만장한 표류담을 중심으로 인간 불굴의 의지와 용기, 또한 슬기로운 지혜를 등장 인물들의 치밀한 감정 묘사와 신화적인 사건 구성과 함께 담아 내었고, 구전되었음에도 당위성을 띤 각 구성 단계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뚜렷한 인과관계 등이 매우 돋보이는 작품이다.

사실 등장 인물들이 바다를 개척한 세계적인 위인으로 꼽히는 마젤란이나 콜럼버스처럼 순수한 도전과 모험에의 의지로 바다로 진출한 것은 아니다. '원정길', '귀향길' 혹은 '표류' 정도로 항해에 대한 제 각각의 명분은 정해진 것이지만 이들의 "항해"는 무척이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타카, 스키테리아, 트리나키 등 작품 안의 지명(地名)은 대부분이 섬이다. 섬과 섬을 오가며 가장 필수적으로 또한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교통 수단이 배란 이야기다. 게다가 배 안의 기구들이나 순탄하지 않은 항해에 대한 섬세한 묘사 또한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적인 근본을 두고 쓰여졌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서 바다는 멀리 있지 않은 오히려 생존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느끼게 한다.

키클로페스 섬의 외눈박이 괴물, 라이스트리고에스의 거인들, 여피 세이레네스, 마녀 키르케 등 오디세우스는 인간으로서 절대 감당 못할 괴물들을 상대해야 했다. 동료들의 실수로 또한 자신의 방심으로 인해 태양신과 바람의 신, 바다의 신 등의 노여움을 사서 흉폭한 항해를 지속해야 했으며, 외딴 섬에 억류되어 고향을 향해 10년간 눈물을 흘려야 했다. 누가 보아도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위험천만했고 공포 그 자체였으며 그것이 죽을 만큼의 고통이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디세우스는 매번 불같은 의지로 일어섰다. 공포와 괴로움을 딛고 오히려 고비때마다 기지와 슬기로운 용기로 위험을 헤쳐나갔다. 오디세우스는 영웅적인 이상적 인간상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긴 세월을 걸쳐 원초적인 공

포이자 영원한 저항의 대상인 대자연에 맞서 싸워온 ‘인간’ 그 자체를 대변하는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태고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자연에 길을 만들어 온 인간의 업적은 도전과 개척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찬양 받기에 이르지 않았는가! 바다에 대한 지식도, 장비도 불분명한 채, 비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사라질 지라도 인간은 바다 위에서 길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것은 슬기와 용기 등 인간 본연의 정신적 힘만을 토대로 한 노력의 표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외양적으로 의인화된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은 오디세이아 속에서 절대자로 군림하며 인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한다. 인간들은 그런 신들을 달래기 위해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야 했다. 바다의 절대자로 등장하는 포세이돈의 경우 황금빛 삼지창을 손에 들고 검은머리 위에 왕관을 두른 거대한 신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바다의 모든 재앙이 그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한 포세이돈의 절대적인 힘을 묘사한 대목이 다음과 같을 정도다.

“그는 구름을 굽어모으고 두 손에 삼지창을 집어들어 바다를 마구 휘저어 놓았다. 그리고 모든 방향의 바람과 태풍을 있는 대로 불러일으켜 때를 지어 모여드는 구름으로 대륙과 대양을 모두 함께 덮어 버리자 천상에서 밤이 생겨났다.”

그런 절대자인 포세이돈에게 노여움을 사지않는 순탄한 항해를 기원하며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나라에도 바다에 ‘용왕’과 같은 신이 있었던 걸로 보아 바다의 무시 무시함과 크나큰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신앙적 기대로 바다와 교감을 원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오디세이아의 세계에서는 원만한 항해를 했을 경우도 신들의 의지나 도움으로 간주한다.

“아이올로스(바람의 신)가 서풍을 보내 주었다.”

“뭇 구름의 신 제우스가 순풍을 불어 주었다.”

등의 표현으로 순항에 대해서도 신격화를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위안을 삼는 인간의 나약한 행동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바다의 신들을 달래고 상기함으로서 또한 그 드넓고 거친, 무한 세계에 대한 동경과 경이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좀 더 바다가 가까워질 수 있었지 않으나 싶다.

그렇다면 바다는 인간 의지로 극복되고 정복될 대자연의 거대한 적일 뿐인가? 아니면 경배와 기대를 갖게 하는 친숙한 설레임을 주는 존재인가?

이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다시금 인간의 길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과연 '인간의 길'이란 것이 변화와 정복에의 의지만이 담긴 것인가? 인간은 단순한 편리 추구의 목적으로 파괴만을 일삼아 온 것일까?

산에 길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산을 정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산을 파괴했다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산과 함께 숨을 쉬기 위해 산에 길을 만들었다. 산과 함께 살고 산과 교감하기 위한 그런 길인 것이다. '질서'라는 인간사회의 추상적인 길은 인간 서로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길이자 서로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다.

기원전 세계에서 지금처럼 발전된 기술 없이도 인간은 바다에 뛰어 들었다. 인간의 길 만들기 노력은 아무리 거칠고 어렵기만 한 바다라고 예외 될 수 없었고 그런 위험을 무릅쓴 투철한 도전 정신에 의한 시도로 지금의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바다 위의 길이 생겨났다. 비로소 인간과 바다가 서로를 가까이 마주대할 수 있는 장이 펼쳐져 왔던 것이다. 바다와 인간을 이어주는 그길에 의해 인간은 바다를 아름답게 가꾸게 될 것이며 바다는 인간에게 엄청난 잠재력의 세계를 열어 주게 되는 것이다.

오디세우스의 투철하고 막강한 정신력은 인간의 오랜 세월 변하지 않을 바다를 포함한 대자연에 대한 굳건한 인간적 신념을 표방하는 것이며, 신들에게로 대변된 바다 위의 염원과 기대에는 바다에 대한 인간에의 구현 그리고 공생적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온 바다 위의 길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도전과 응전, 사랑과 증오가 교차되는 부모 자식간의 미묘한 싸움인 것이다.

저멀리 우주에까지 길을 내고 있는 끊임없이 변화와 정복,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길들이기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인간에 대해, 거대한 대자연의 어머니인 바다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질 것이며 또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가? 아마도 바다는 지금껏 행해온 인간들의 슬한 노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방자한 욕심에 대해서는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계속 될 인간들의 아름다운 열정에 대해서는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지구위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